

10/22/23

설교 제목: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6 장 10-24 절

(엡 6: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엡 6: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엡 6: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엡 6: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엡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절관주** 잠 26:18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엡 6: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6:21)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엡 6:22)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엡 6:23)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마스의 갑작스런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주변국들과 또 이해가 얽힌 나라들이 개입할 조짐이 보이고 있어 전쟁이 크게 확대되지만 않을까
전 세계인들이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확대된다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세계 3차 대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종말을 말씀해 주시며 마지막 그 날 구원받는 길까지 열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는 권면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지말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신 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마귀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여느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큰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세상 모든 일이 만사형통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 혹독한 고난과 시련에 부딪쳤고 그로 인해 당혹해 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고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이 서신을 보내며 그들의 바뀐 지위와 그에 따른 권한 등을 설명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지키며 살아야 하는 원칙들을 관계 속에서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영적 전투에서 성도가 어떻게 무장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서신을 마무리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엡 6: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엡 6: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강건하여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적들은 이런 연약하고 유한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적 세력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만약 성도들의 대적이 혈과 육이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 지혜롭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여 이길 수 있겠지만 성도의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이기에 성도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악한 영적 세력들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골 2: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여 성도 개인과 교회를 분열시키려 합니다.

성도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까지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담대히 맞서서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대해 이미 승리를 거두셨지만 아직 궁극적인 승리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전투가 단순히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기에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강조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엡 6: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는 창을 비롯한 모든 공격 무기와 갑옷 방패 등의 방어 무기까지 갖춘 '완전 무장한 전투 복장'입니다.

'악한 날'은 세상의 종말에 있을 환난의 날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탄 마귀가 기승을 부리는 때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입니다.

(엡 6: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엡 6: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엡 6: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엡 6: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먼저 '서서'라는 것은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언제라도 다가올 적군과 싸울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 띠입니다.

당시 의복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붙들어 매야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이라기 보다는 '진실함과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란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금속으로 된 흉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로 인한 칭의가 아니라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된 것으로 수직적 수평적 화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는 원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 우주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로 살기 힘써야 합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긴 방패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온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마귀의 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마귀에 의한 모든 공격 즉 핍박 의심 절망 등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이런 공격을 저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는 이미 실현된 구원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죽음과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써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긴 싸움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전신갑주 중 유일한 공격 무기로 '하나님 말씀' '레마'를 말합니다.

마귀는 악한 간계로 우리를 공격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의 간계는 속이는 것이기에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마귀의 술수를 파악하고 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뿐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갑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후 40 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 (마 4: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 (마 4: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마 4: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 (마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마 4: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 (마 4: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 (마 4: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마 4: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 (마 4: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 (마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 (마 4: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사도 바울은 본서를 마무리 하면서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인내를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까지 기도와 관심을 확대시킬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고 또 응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 당신이 알아서 우리 삶의 필요들을 채우신다면 우리는 응답으로 인한 믿음과 신뢰와 감사와 기쁨을 가지기 보다 형통으로 인한 교만과 안일함과 나약함에 빠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실하게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땅에 부어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와 관련된 것으로 본서에 언급된 '너의의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말합니다.

(엡 6: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엡 6: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루 빨리 자신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중심지인 로마 법정에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요?

자신과 가정과 형제, 자매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요?

세상적인 평안과 형통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길 기도하면서 본서를 마무리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는 참으로 크고 화려하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가치관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길 간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에베소와 같이, 아니 에베소 보다 더한 세속적 가치관과 쾌락의 문화로 가득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듯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인 유브라데스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은 종말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살아서 이 종말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질 그날까지 전심을 다해 싸워 최후 승리를 거머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 천국에서 만납시다.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